

## 오륙도 칼럼



최철훈

한가위는 우리나라 대표적 명절이다. 햅쌀로 밥을 짓고 송편을 빚으며 새 옷을 입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한다. 조상의 음력을 추모하고, 근본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수확과 풍년을 축하하고, 이웃끼리 서로 인심을 나누며 즐기는 일 년 중 가장 풍요롭고 포만감 충분한 명절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시대의 갈쌈놀이인 가배(오늘날 한가위의 '가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그 뜻은 가운데 '중' 또는 '반'이라는 의미로 가을의 반 중추(中秋)인 할쌈 표기)에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크다'의 고어인 한과 합성된 말이 한가위다.

### 갈쌈놀이 가배서 한가위 유래

한가위는 여인들의 축제에서 시작 된 것이다. 신라시대 부녀자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 백중(곡식이 많이 100가지 씨앗을 갖추다 해서 유래 된 날로 남자들의 날이었다) 다음날부터 한가위 전일까지 갈쌈한 것을 음력 8월15일에 승부를 가려진 마을이 음식을 대접하고, 농동요인 회소곡을 부르며 밤새도록

춤과 노래를 즐겼다고 한다.

농경시대는 기후의 변화와 강수량에 따라 풍년과 흉년으로 나누어져 삶의 질이 결정되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하는 마음이야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더도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한해의 안녕과 풍성함을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말이다. 그런 뜻 외에도 이 말의 깊이와 속뜻은 여인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바람이었다. 봉건사회에서 여인들의 사회 활동의 범위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제한되었고, 가사, 육아, 농사일 등 밤이면 갈쌈과 나절에 이르기까지 술한 회생을 강요당했으나 여자라는 운명과 이름 하나로 참고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충, 효, 절이라는 유교 봉건사회의 문화 속에서도 한가위

날만큼은 여인들에게 시간과 여유를 대폭 양보하는 여유와 미덕이 상존하였다. 평소 엄격한 여인들의 외출도 '반보기'라는 중로상봉(中路相逢)을 통해 하루를 다녀 올 수 있는 거리의 진정을 가진 며느리에게 허락하여, 여인들로 하여금 친정식구들을 만나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회포를 풀 수 있게 하였다.

### 원래는 여성을 위한 명절

여인들의 날이라 할 만한 한가위, 이날만은 여인들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여인들에게 철거지악이란 축제를 채워놓고 동시에 삼탈거를 만들어 놓은 봉건사회 제도처럼, 여인을 위한 한가위의 풍습은 속박 속에서 그것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놓은 조상들의 지혜를 엿 볼 수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다시 디지털 사회로 변천해 오면서, 의식구조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에 따른 삶의 질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구조로 바뀌고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모든 일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어 가면서 벌어지는 반사이익도 크지만, 농경중심 사회가 지향하던 인간의 따뜻함과 자기보다 못한 이에 대한 배려의 문화는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다. 둘 다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다면 그것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여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한가위의 여인 중심적 배려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모든 면에서 남녀평등의 가치

는 존중되어지지만 또 다른 형태의 여인에 대한 구속과 속박은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번 명절은 38년 만에 도래하는 가장 이른 한가위란다. 그래서 그런지 여름이 실종 된 것 같다. 아직은 더위의 등상에 밤잠을 설치야 정상인데 유난히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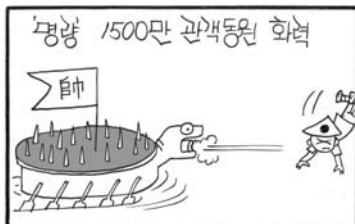
장맛비가 무더위를 떨어내고 밤의 정적을 깨는 가을의 전령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한 발 성큼, 시인이 아니라도 시인이게 하는 목소리로 다가간다. '이젠 모두 내려놓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라'는 주문 같기도 하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명절을 기대해 본다.

문장21 발행인 겸 시인

## 신선대

&lt;223&gt;

채규중



## 선웅의 1000자 지혜 <223>

### 모순

자식은 원래 다른 극 끼리는 당기고 같은 극은 밀어내는 성질이 있다. 그러나 물과 불, 밝음(明)과 어둠(暗), 움직임(動)과 조용함(靜)같은 것은 극과 극이지만 양립할 수 없다.

그런데 서로 당기려하는 것을 밀어내고, 밀어내려 하는 것을 당기면 어떻게 될까? 중국의 초나라에서는 병기를 많이 생산했는데 그 중에서도 창과 방패는 강도가 높고 품질 또한 뛰어나 다른 나라에서도 탐을 낼 정도였다. 하루는 초나라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러 북쪽에 있는 어느 나라로 갔다.

"여러분 이 창과 방패를 보십시오. 이것은 먼 남쪽의 초나라에서 만든 것입니다." 상인은 그렇게 외치며 여기저기를 다녔다. "초나라의 창과 방패를 가져왔다니 어디 구경이나 해보자!"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여러분께 여러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천하에서 초나라의 창과 방패가 최고이지요. 이것만 가지면 저절로 힘이 나고 싸울 때도 망가지거나 풀리지 않아 귀한 목숨도 보존하고 큰 공도 세울 수 있습니다."

상인은 사람들이 조금 호기심을 갖는 것 같아 더 큰소리로 말했다. "이 창은 강도가 높아 예리하게 다듬은 날과 끝이 언제까지나 무디어지거나 망가지지 않아 적의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번에는 방패를 들어올렸다. "이것은 이야기 안할 수 없군요. 이 방패는 매우 단단하여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초나라 상인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때 한 사내가 말했다. "지금 하신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사실이고 말고요. 나의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안 사면 될게 아닙니까?" 상인이 화를 내어 말하자 사내가 말했다.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한번 찔러보시오.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소!" 초나라 상인은 아무 말도 못했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라고 소리쳤다.

'모순'이란 말은 바로 이 고사의 창 모(矛)와 방패 순(盾)에서 나왔다.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은 일들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순 속에서 용케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사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 아이들에게 실수도 가르치자

어느 곤충학자가 말한 내용이다. 나뭇가지에서 고치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나비를 본 한 아이가 안타까운 마음에 손으로 나비가 나오는 구멍을 넓혀 주었다면? 소년의 도움으로 쉽게 구멍을 뚫어나갈 수 있었던 나비는 날개를 파먹어버린 끝 비시시 쓰러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자정 도의주는 것보다 스스로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일러주는 자연의 가르침이다.

사실 요즘 주변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 ■ 명예기자 에세이

### 식초와 엄마 그리고 추억

"내 죽었다가 살았대여." 추억이 일주일 좀 지난 뒤 친정에 갔을 때 엄마가 던진 말이다. 밥을 먹다가 놀라 엄마를 쳐다보니 숟가락질을 계속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그 날은 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산모퉁이에서 갑자기 큰 벌이 '윙'하며 날아와 공격을 하려한다. 어질어질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주저앉았는데 '야 이대로 죽나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나는 속으로 적잖이 놀랐지만 짓궂게 물었다.

"엄마, 그때 누구 생각이 났어?" "누구라기보다는 '큰일 났네, 가 뭘이 들어서 몰도 안 나오는데 물 한번 길어보지 못한 너희들이 초상을 어떻게 치르겠노'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

"아이고, 죽고 나면 누가 물어도 물어주지 별 걱정을." 그러면서 나도, 엄마도 숟가락질만 계속 해댔

다. 평소애 말이 없어 누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먼저 말을 걸지 않던 엄마는 그날따라 말을 많이 하셨다. 벌에 쏘인 뒤 해가 워낙 넘어갈 때가 되어서 정신을 차린 엄마는 키다시와 집까지 왔는데 머리가 깨지는 고통의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윙'하며 날아와 공격을 하려한다. 얼굴이 부끄러워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오리 좁았을 때 버스에 오른 한 노인이 "허허, 말발에 쓰였네. 식초를 발라야지. 병원 말고 집에 가서 식초나 발라!"

엄마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집에 와서 그 노인이 시킨대로 식초를 발랐더니 통증이 많이 가라앉더라. 그날 이후 엄마는 늘 나에게 말 씀하셨다. "식초 갖고 땀가!"

식초 사랑 10여 년 후 엄마 산소에서 풀을 베다가 벌집을 건드린 내게 벌 한 마리가 불에 달려들었다.



잡박, 숨넘어가는 소리다. 평소 그나마잡지 않은 호들갑이 이어진다. 전회기를 타고 넘어오는 목소리가 광분에 가깝다. 호젓한 시골 길을 달린들 중 도로 중앙에 딱 버티고 섰던 새끼 오리 한 마리를 주웠다. 설명이다.

꽃 화분 하나 돌보지 못할 만큼 삶에 지치고 세상 어떤 일에도 열매지 않는다는 친구가 "아파트 거실에서 오리를 키우겠다"고 선포한다. 오십 줄의 여자가 갱아지도 고양이도 아닌 오리와 동거라니. 실시간으로 보내온 영상에 저절로 웃음이 난다. 적당히 살이 오른 영물을 좌우로 실룩거린다. 제 아무리 목을 길게 빼고 가슴을 쭈켜세워도 관능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몸 것이건만 미인대화라도 출현한 양



놀란 나는 엄마 말대로 갖고 있던 식초를 알른 발랐다. 벌이 제대로 못 쏘 건지 식초 덕을 본단지 부어 오르지는 않았다. 한 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두 세 시간 혼절해 있었을 엄마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졌다. 몇 년 전, 해운대 백병원을 배경으로 응급실 상황을 다룬 의학드라마 '골든 타임'에도 식초가 등장했다. 해파리 때의 습격을 받은 피서객들이 응급실에 대거 몰려 왔을 때는 여의사가 "식초 가져와, 식초!"하며 외치던 장면이 있었다. 물론 해파리에 쓰였을 때는 식초가 아닌 바닷물을 써야 하지만 그 장면에서 엄마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벌초의 계절이다. 작은 병에 식초를 넣어 차 안에, 배낭 안에 짐작하기 를 켜해본다. 김해주 기자

### 오리에게 삶의 길을 묻다

단독 워킹으로 거실 페이드를 펼친다. 뿐만 아니라 주방과 안방,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주인 옷자락을 찾아 바작 따라붙는 오리의 행보가 눈물겹기까지 하다.

어릴 적 시골에서 오리를 키운 적이 있다. 뒷강으로 흐르는 개울 한 편에 낮은 울타리를 치고 새끼 오리들을 풀어줬다. 나는 오리 무리를 이끌고 강변길을 오가며 길손을 터주고 툇밭에 걸린 작은 물고기를 갖다 주며 어린 주인 노릇을 토크해줬다. 나를 믿고 뒤쫓다며 따라오는 오리들이 무조건 좋았다. 노란 주둥이로 퍽퍽거리는 울음소리가 든든했고, 가끔 무리에서 이탈한 청둥오리가 다가가거나 목줄이 풀린 영소가 가웃거리며 도망치지 않는 우직한 배짱이 기뻐했다.

오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몇 년 전 난소암으로 세상을 뜬 화가 김점선이다. 그녀와는 일면식이 없지만 꾸미지 않는 외모와 불도저 같은 말투, 도발적인 생각으로

문장을 흘러치는 글 솜씨가 인상적이었다. 대개 새나 말, 오리와 물고기 등을 평면으로 풀어놓은 그녀의 그림은 천진난만하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오리를 그리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 오리들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천천히 움직이는 착시가 일기도 한다.

내가 오리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걸음걸이 때문이다. 조금은 뒤쫓겨달지라도 작인을 지켜내는 귀를 경배하고 싶다. 오리는 뒷걸음을 거부하고 당당히 바람과 마주하여 걸린다. 옛날 우리 집 오리들이 바람에 날개를 흘트트리려 걷는 모습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동물들이 태어나서 처음 각인한 것이 아마리 한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갓 부화한 새끼 오리가 친구를 만난 것도 직진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 모든 길이 운명의 끈으로 이어졌다면 삶의 길에서 맞는 역풍도 피할 일이 아니다.

김정화 기자

### 도전하니까 청춘이다!

"취직 준비 안하고, 자전거로 어딜 간다?"

작년 여름 미국 자전거 횡단을 준비하면서 귀에 따지가 앓을 만큼 많이 들었던 말이다. 대학생 처지라 막대한 경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스폰서를 찾아다녔다. 총장님부터 졸업한 선배들은 물론이고 70군데가 넘는 기업체에 제안서를 썼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냉소와 무관심이었다. 그러나 미국 자전거 횡단은 나의 간절한 꿈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끝없이 기업체에 노크를 했고 마침내 두 군데서 장비와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진구와 둘이서 출발한 5700km의 여정은 '예상대로' 달콤하지 만은 않았다. 'LA에서 마이애미까지'라는 큰 계획만 잡고 작은 계획을 세우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하지만 달랑 지도 한 장 들고 떠난 이 무모함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라는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느낀 미국은 또 다른 신세계였다. 모하비 사막을 지난 때였다. 사막 한가운데서 타이어뷰트가 모두 펑크 나처럼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녹아내릴 것 같은 띄약별 아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트럭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 서는 게 아닌가. 소형차를 타고 가다 우연히 우리의 라이딩 모습을 본 노부부가 우리를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 집에서 차를 바꿔 트럭을 가져왔던 것이다. 가족들을 소개받고 식사 대접을 받는 등 이들은 우리 생명의 운인이었다. 여행 한 달 무렵이던 12월 겨울이었다. 아침까지 분명 햇살이 켜졌는데 라이딩을 시작할 때 쯤 엄청난 폭설이 우리 앞을 가로 막았다. 순식간에 눈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점점 체온이 내려가고 길도 보이지 않았다.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눈보라 속을 뚫고 갑자기 차 한 대가 멈추더니 우리를 안전한 곳까지 태워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차주가 남미사람이어서인지 위험한 빙판 길에서 체온도 걸지 않고 열정적인 운전을 하다가 끝내 차가 미끄러지면서 전복되고 말았다. 천만다행으로 낭떠러지가 아니어서 크게 다치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모퉁이 송연해진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무모한 도전'을 후회하지 않았다.

73일간의 미대륙 횡단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친구들은 부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력서에 한 줄 쓸 게 생겼네."

요즘 대학은 취업을 위한 학원이 되어 버린 것만 같다. 내가 미국 횡단을 통해 얻은 것은 '이력서'에 담은 독특한 이력 한 줄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달란트' 자체다. 생면부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웠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분명 그 자리에는 열매가 맺힌다는 평범한 교훈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체감했다. "젊음은 젊음이가지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바나드 쇼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청춘을 최대한 느끼고 활용해야하지 않을까. 며칠 전에는 이틀간 100km 울트라마라톤을 하고 와 온 몸이 파김치가 됐다.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물어오면 근사한 답을 해주고 싶지만, 솔직히 없다. 그냥 그게 해보고 싶었을 뿐이다. 왜냐고? 청춘이니 도전하는 것이다. 땅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것처럼, 도전 역시 인생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허정훈(부경대 전기공학과 4학년)



자전거 타고 미대륙 횡단  
도전과 실패는 청춘 특권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성현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원단 &lt;비매물&g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복지를 위해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세의무자 : 8. 1. 현재 구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세대원 제외)

구내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납부기간 : 2014. 8. 16. ~ 9. 1.

○납부방법 : 각 금융기관, 인터넷(Cyber지방세청), 지방세납부계좌이체

○문의 처 : 세무2과 ☎607-4251 ~ 4255